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1925)

이 글은 여성의 심리발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최종 평가하여 발표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915년 이후 여성의 성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전 단계에 일어나는 여아들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관한 생각을 이 글에서 피력했다.

어린 아이의 성 생활에 의해 형성되는 최초의 정신 유형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남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상황은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다. 나는 남아의 오이디푸스적 성향이 남근기에 속하며, 거세의 두려움, 즉 생식기에 대한 자기애적 관심 때문에 그 성향이 파괴됨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남아도 그의 양성적 성향에 따라 적극적active이거나 소극적passive인 이중적 성향을 띠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남아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 대상으로서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바람을 갖는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 이전에 남아는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시기 자위행위가 양육자에 의해 제지되면 아이가 거세 콤플렉스를 보인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성애로 시작하다가 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을 맺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야뇨증과 훈육을 통해 그 버릇을 깨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자위의 결과로 간주하고, 그것의 강제적 중단이 남아에게는 생식 행위의 금지로 간주되어 거세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성교 장면을 엿들은 아동이 최초로 성 흥분을 일으키고, 그 여파가 성 발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남아에 비해 한 가지 문제가 더 제기된다. 어떻게 해서 여아의 경우 대상이 아버지로 바뀌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아들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내력을 알 수 있었다. 분석가들은 유달리 아버지에게 집착하는 여성들을 만나는데, 이 집착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에서 절정에 이른다.

남근기 최초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아들이 남자 형제나 친구의 페니스가 크게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즉시 그것을 그들의 자그마한 돌출부의 대응물로 인식하고는 그 이후 그것에 대해 부러움을 갖게 된다. 남아의 경우는 거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아의 행태는 순간적으로 판단 내리고 결정한다. 여기서 소위 남성 콤플렉스가 생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여성답게 발육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페니스 선망에 귀결되는 현상은 그 부러움이 남성 콤플렉스에 대한 반작용 형성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열등감**. 그녀는 남성들처럼 여성을

경멸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려 든다. 선망은 질투로 계속 살아남는다. 질투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매 맞는 아이’에서 매 맞거나 애무 받는 것은 결국 클리토리스여서 그 환상의 심층부에는 자위에 대한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여아의 사랑이 식는다. 그토록 불완전하게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페니스 부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아는 자신의 생식기가 불완전함을 발견한 후,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질투하는데, 이는 곧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자위가 여성의 본성에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클리토리스로 자위 하는 것 자체가 남성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수궁이 간다. 따라서 클리토리스에 의한 성행위를 불식시키는 것이 여성성의 필요한 전제다. 페니스 선망 이후 자위행위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나타나는데, 자기연민적 굴욕감과 관련이 있다. 결국 남아들과 경쟁할 수 없고, 따라서 남아처럼 행동하기를 단념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 이제 페니스 선망을 버리고 대신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갖으며 그런 의도에서 아버지를 사랑 대상으로 간주한다.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소녀는 여성으로 변하게 된다.

여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2차적으로 형성된 현상으로 거세 콤플렉스가 이에 선행한다. 남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파괴되는 반면 여아의 경우 그것이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성립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나가고 여아는 들어간다. 다만 나오지 못한다)

남아의 경우 이 콤플렉스는 억제될 뿐 아니라 산산조각 난다. 그것에 대한 집착이 포기되고, 연상이 제거되며, 승화되기도 한다. 또 그 대상들이 편입해 들어와 초자아의 모태가 되고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킨다. 여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파괴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나는 여성의 정상적 윤리 기준이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모든 시대의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바, 여성의 성격 특성은 남성에 비해 정의감이 약하고, 인생의 큰 위기에 순발력이 적고, 애증 같은 감정적 판단의 영향을 더 자주 받는다.

여성의 성욕(1931)

1

남아나 여아 모두 첫 번째 사랑 대상은 어머니였는데, 남아의 경우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랑 대상으로 남는 반면 왜 여아는 아버지를 택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래 전 여아가 자신의 성감대인 클리토리스를 버리고 새로운 성감대로 질을 선호함에 따라 여성 성욕의 발달 양상이 복잡해짐을 알게 되었다. 이것과 대상 전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성들을 관찰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성에게는 그 이전에 어머니에게도 강한 애착을 갖는 기간이 있었다. 그와 같은 애착의 지속기간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 여아가 어머니에 대해 애착심을 갖는 기간은 네 살 심지어 다섯 살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아가 어머니에게 애착심을 갖는 기간은

초기 성 개화시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여성의 전-오이디푸스기가 새롭게 중요성을 띠는데, 그동안 그 단계에 대해 주목을 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도 억압과 고착이 존재한다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신경증의 핵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포기해야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내용을 확대하고, 첨가하면 될 것이다. 여아의 전-오이디푸스 단계에 대한 발견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마치 미케네 문명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첫 단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정신분석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흐릿하고 되살리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 분석가들, 가령 헬레네 도이치는 이런 사실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절하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이 기간이 신경증이나 편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근원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과하는 많은 규제의 결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적개심과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여성이 아버지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이전에 어머니에게 애착을 보였던 것의 유산이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애착을 보이는 기간이 예상외로 길다.

인간의 내재적 성향 속에 존재하는 양성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분명히 부각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성 기관이 두 개, 즉 클리토리스[남성적]와 질[여성적]. 여아의 주요 생식기 활동은 주로 클리토리스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성장에는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바로 대상 발견과 관련된다. 여아의 경우 성장의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랑-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는 근본적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것인가?

한 부모에게만 사랑을 보이고 다른 쪽의 부모는 경쟁자로 증오하는 운명적 결합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남아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그리고 초자아를 생성시키고, 문화 공동체 속에 자신을 자리 잡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성 생식기를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거세 가능성의 발견이다. 유아 성욕의 감소로 전환되는 것은 바로 남아의 나르시시즘적 관심이다. 즉 자기의 페니스를 보존하려는 관심.

여성에게는 거세 콤플렉스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은 자신이 거세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한다. 이로부터 세 가지의 발달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성욕에 대한 반감. 남아와 비교하여 위축된 영아는 점점 자신의 클리토리스에 불만을 갖고, 남근적 행동을 포기한다. 그녀의 남성적 활동의 상당 부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욕 전반까지도 포기한다. 둘째 위협받는 자신의 남성성에 극렬하게 저항하며 더욱 강하게 집착하는 성향이다. 남성이 되겠다는 환상은 장기간에 걸쳐 성격 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지속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남성 콤플렉스'는 동성애적 대상-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선택하고,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의 여성적 형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 여성 태도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는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된다.

전오이디푸스 단계가 여성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 생활에서 어머니와의 나쁜 관계를 반복하는 경향. 이는 그녀와 그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와의 1차적 관계가 억압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이전 단계에서 비롯되어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다시 강화된 태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강하게 집착했던 대상에게서 벗어나는 기제가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에서 우선 질투심이 있다. 어린 시절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며, 전부가 아니면 만족을 모른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랑이 실망으로 끝나면서 적대적 태도로 바뀐다.

자위 금지는 자위를 포기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이 금지는 자위를 금한 사람에 대한 반항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반항적 자위의 지속은 남성성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 자유로운 성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원망이 그녀를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아는 처음에 거세를 자기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마침내 생식기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면서부터는 여성은 심각한 가치절하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인식된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제대로 된 페니스를 주지 않았다는 원망이 생겨난다. 그리고 젖이 충분치 않았다는 원망. 이는 분명한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제껏 여아들이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아무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마치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보다 더 좋은 것처럼. 최초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성애적 삶의 첫 단계에서는 양가감정이 분명한 규칙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여아의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착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며, 이런 이유로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지금껏 설명해온 바에 따라 즉각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남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남아의 경우 그들의 모든 적대감은 아버지에게 돌림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3

여아가 어머니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여아의 성 목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대했던 바대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지니는 성 목적은 수동적이며 동시에 능동적인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서 보듯, 그것은 어떤 적극적 행동으로 수동적 경험을 보충한다. (포트-다 놀이) 말하자면 수동적 경험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는 첫 번째 성적 경험은 수동적이다. 우선 어머니에 의해 젖을 물게 되는 수동적 태도. 그러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빠는 능동적 태도로 바뀐다.

여아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런 능동적 소망을 성취한다. 가령 인형놀이. 여아는 엄마가 되고, 인형을 자기 아이로 대한다.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여아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대상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과정과 더불어 능동적 성충동이 줄어들고 대신 수동적 충동이 활발해진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더불어 클리토리스 자위행위도 사라진다. 아버지-대상으로 전이되는 것은 수동적 성향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보론

라캉의 성구분sexuation 공식

거세: 라캉의 거세는 향유의 포기, 즉 음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향유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과 관계한다. 희생된 향유는 어찌 되는가? 그것은 타자 쪽으로 이동한다. 신체에서 짜내어진 일정 향유는 말 속에서 재발견된다. 언어로서의 타자가 우리 대신 즐긴다. 우리의 말하는 존재로서의 도래는 상실을 만들어내고, 이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에 있다. 라캉의 작업에서 향유의 희생은 우리가 말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타자의 요구로 인해 필연적인 것이 되며, 자폐증자 만이 이러한 희생을 물리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향유를 위해 인권이라는 법의 보호막을 치게 되면 오히려 모두에게 향유가 고갈된다. 현실원칙이 부과하는 포기는 쾌락원칙을 우회와 자연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초자아는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존재를 죽이고 그래서 기표만 살아간다.

남근: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우주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무엇이다. 다른 모든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한 기표가 아이를 넘어서는 부모의 욕망의 그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점 때문에 그것은 또한 타자의 욕망의 기표라고 지칭될 수 있다. 그 기표는 남근이다. 이는 보편과 필연은 아니며 그저 일반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욕망의 기표는 욕망의 원인과 같지 않다. 실재로서의 대상 a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욕망이 항상 결여와 관계되는 한에서 남근은 결여의 기표다. 거세가 구조를 작동시키는 원초적 상실이라면, 남근은 그 상실의 기표다. 주체가 기표와 맺는 관계의 이면에 있는 존재의 상실이나 부재의 기표다. 남근 기능은 결여를 설치하는 기능이다. 이는 라캉이 남성적 구조와 여성적 구조를 정의하는 데 핵심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열에 의해 설치되는 저 결여, 저 상실을 통해서 정의된다.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이는 사람들이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관계rapport는 추상적인 비례, 비율 같은 개념을 함축한다. 라캉에 따르면 성들 간의 진정한 관계로서의 자격을 가질 그 어떤 것도 말해지거나 쓰일 수 없다. 성들의 관계에는 그 어떤 상보적인 것도 없고, 역전의 관계도 없으며, 평행관계도 없다. 각각의 성은 **3항**과 관련해서 따로 정의된다. 라캉이 보여주려는 바는 이렇다. 첫째, 성들은 각기 상이하게 정의된다. 둘째, 성들의 파트너들은 대칭적이지도 겹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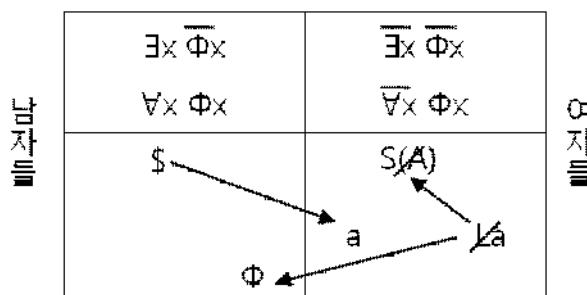
라캉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언어와 맺는 상이한 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라캉의 성구분 공식은 오직 **신경증 주체**하고만 관련이 있다.

우선 남자들. 생물학적 구성과 관계없이 정신분석 관점에서 남자로 간주되는 이들은 남근 기능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된다. 즉 남자들은 언어 안에서 전적으로 소외된다. 달리 말해 남자

들은 상징적 거세에 **완전히** 종속된다. 남자의 욕망은 결코 근친상간적 소망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캉의 작업에서 남성적 구조는 강박신경증과 동의어다. 남자의 쾌락도 제한되며, 그 경계선은 남근 기능에 의해 규정된다. 남근적 향유. 이는 사유에 포함된 쾌락이며 정신적 자위라는 표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남자들이라는 범주 아래 들어오는 이들의 경우, 주체와 대상 사이에, 상징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사이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대상은 부분대상이다.

다음 여자들. 정신분석 관점에서 여자로 간주되는 이들은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여자는 소외되어 있지만 상징적 질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 상징적 질서와 관련해 여자는 전체가 아니며 제한되어 있지 않다. 여자들은 남근적 향유 외에도 다른 향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타자적** 향유라고 부른다. 여자들로 분류되는 모든 이가 타자적 향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잠재성. 여성적 구조는 남근 기능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한다. 남성 히스테리증자와 여성 강박증자가 가능한 이유.

성구분 공식: 세미나 20



위의 표에서 거꾸로 쓴 A는 전체, 파이는 팔루스, 남근 위에 가로선은 부정[폐제]을 나타낸다. 따라서 좌측 위 칸의 아래 명제는 한 남자의 전체는 남근 기능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 명제를 보면 하나의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전체는 예외에 근거한다. 프로이트가 『토텐과 타부』에서 말하는 시원적 아버지. 남자는 한계를 정하는 어떤 것이 있기에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될 수 있다. 아버지가 없다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남성은 거세되지 않은 위치에서만 진정으로 여성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원초적 아버지만이 진실로 여자를 만끽할 것이다. 평범한 유한자 남성들은 그저 체념하고 오직 대상 a를 즐기는 것에 만족한다. 즐 여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 환상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여성적 구조

표의 오른쪽 위 칸 아래 명제를 보면 어떤 사람의 전부가 남근 기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한다. 여자의 일부는 남근 기능에서 벗어난다.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그 가능성은 결정적이다. 그 위 명제는 남근 기능이 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단 한 명의 여자도 없다. 모든 여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남근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음을 함축한다. 남근 기능을 거부하는 그녀의 어떤 **부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남근 기능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는 그래도 남근 기능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근을 넘어서는 여성적 심급은 존재하기 보다는 탈-존한다.

남자는 남근 기능과 관련해서만 전체이다. 여자는 이 기능의 견지에서 고려될 때를 제외하면 남자보다 결코 덜 전체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적이지 않다.

도표 아래쪽을 보면 여자들은 두 가지(팔루스와 최초의 상실의 기표)와 관계함을 본다. 남성은 오직 a하고만 관계한다. 여기서 타자 속 결여의 기표라고 지칭되었던 상실의 기표는 충동들의 승화, 즉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타자적 향유의 의미일 것이다.